2022년 7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 12일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중소벤처기업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• 문의 : 미래산업전략팀 오지영 팀장(044-204-7680), 정충준 사무관(7681)

우주산업 유망 중소기업과 정책간담회 개최

□ 우주산업 유망 중소기업과 최근 기술동향 공유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논의

□ 향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우주산업 분야 중소·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, 이하 중기부)는 7월 12일(화),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'우주산업 분야 중소기업 정책간담회(이하 간담회)'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< 정책간담회 개요 >

■ (**일시·장소**) '22. 7. 12(화) 14:00 / 동반성장위원회 (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20층)

■ (**참석자**)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, 미래산업전략팀장, 우주산업 분야 중소기업 대표 5명

* 참석기업 :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,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, 이노스페이스, 다비오, 루미르

■ (**주요내용**) 우주산업 중소기업 기술현황 공유 및 현장 경영애로·정책건의 논의, 우주산업 중소·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방안 토론 등

이날 간담회는 최근 뉴 스페이스* 시대를 맞이해, 우주산업** 분야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현황을 공유하고,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민간기업이 자율시장 경쟁구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로 ▲발사체 재사용, ▲소형위성 대량생산, ▲상용부품 우주산업 적용 등으로 사업성 확보

**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 : 2019년 기준 2,707억달러 (약 298조원) 규모로, 2040년에는 약 3.6배인 1조1,000억달러 (약 1,320조원) 수준으로 성장 전망 ('21, 모건스탠리)

최근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.

우주산업은 발사체·위성 등 우주기기의 제작 및 운용, 우주관련 정보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으로,

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(매출액)는 2,707억 달러(약 298조원)이며,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(2.78조원)는 전 세계 규모 대비 약 1%인 상황이다.

한편, 전체 우주기업 중 대부분*이 중소기업이며,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300여개로, 지속적으로 성장** 중인 우주산업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전체 우주산업 기업(389개) 중 88.7%(345개)가 중소기업('21, 우주산업 실태조사)

** (17년) 326개 → ('18년) 342개 → ('19년) 359개 → ('20년) 389개로 매년 7.3% 증가 중

이번 간담회 참여기업(5개) 중 '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'는 초소형 위성을 제작해 누리호 발사에 참여했으며, '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'는 민간 스타트업 최초로 액체로켓 발사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.

'이노스페이스'는 독자적인 초소형 위성 발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, '루미르'는 초소형 위성 제작 및 위성데이터 분석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.

또한 '다비오'는 자체 인공지능(AI) 기술을 통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글로벌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.

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관은 "국내 우주산업 분야는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정착기*에 진입한 중요한 시점임에 따라, 중소·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*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은 태동기 → 정착기 → 성숙기를 거침

또한, “우주산업은 대형 국책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, 우주산업은 국가지원이 많은 시기에 우주기업의 규모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분야”라며,

“우주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, 사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다른 산업보다 데스밸리가 길고 깊다는 특징을 고려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중기부는 현장에서 논의된 정책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내 우주산업 분야 중소·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정충준 사무관(☎ 044-204-76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간담회 참석기업 및 기업 주요 현황

참석기업	관련 분야
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	초소형 위성 제작, 위성 데이터 서비스 ('15.3월 설립)
다비오	위성 항공 영상정보 판독 등 ('12.2월 설립)
루미르(주)	초소형 SAR 위성제작 및 SAR 영상데이터 관련 서비스 ('09.11월 설립)
㈜이노스페이스	발사체 개발 ('17.9월 설립)
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	소형 우주발사체 개발 ('16.3월 설립)